<녹 취 문>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전 동양화학 여성 노동자		
면담자	표기자	면담지원자	박인옥
면담일시	2025. 09. 13.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동아리실
녹취문 작성자	표기자	회차	2회차

1. 시작멘트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00:05~00:00:20)

본 면담은 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의 주민 구술채록을 위한 인터뷰입니다.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 도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위해,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구술해 주실 분은 이옥순 선생님입니다. 일시는 2025년 9월 13일 토요일이고, 장소는 학산문화원 동아리실입니다. 면담 진행은 표기자가 하겠습니다.

2. 개인 신상(00:00:21~00:10:47)

면담자: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저희 2시에 도착했었는데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할게요.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본 면담에는 저가 먼저 이렇게 형식 공식적으로 읽어야 될 그 말이 있어요. 그거 읽으면서 시작을 할게요.[시작 멘트 읽는다.]

선생님 언제 봤었죠?

지난번에 1차 면담 때 9월 지난주에 봤었나요? 그렇게 박력 있게 내던지세요. 하하하[인터뷰 시작하자마자 구술자에게 전화가오니 깜짝 놀라시면서 바로 옆에 소파에 던져버리셔서 웃음이 터졌다.] 받으셔도 괜찮으세요. 받으셔도 괜찮으니깐요. 선생님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은 해 주셨는데 몇 년도에 어디서 태어나셨죠?

구술자: 태어난 곳 강원도

면담자: 강원도 어디

구술자: 강원도 평창

면담자: 평창이라고 하셨죠. 42년생이시고 네 그러면 선생님은 몇 남매 중 몇 째세요?

구술자: 사망한 걸 말하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

면담자: 아니 그냥 처음에 태어나신 분 다 합해.

구술자: 8남매 8남매 셋째

면담자: 8남매 중 셋째 그러면

구술자: 오빠 하나 언니 하나

면담자: 오빠 하나 언니 하나 그러면 둘째 딸이시네요. 딸로는. 42년도면 일제 시대 때예요. 일제 강점기 시대 때예요. 그리고 또 5년 후에 한국 6.25 전쟁도 경험을 하셨고

구술자: 그 때 9살 때.

면담자: 9살 때. 6.25.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이제 겪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태어나고 일제 강점기 시대, 그다음에 전쟁 겪으면서 그 시대에 혹시 살림살이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구술자: 살림살이 그저 그때 다 어렵지. 어렵게 사는 거지. 그전에 뭐 베(벼) 농사 지어도 거름 하나 안 하고 참 저 비료 같은 거 하나로 거름만 갖고 하니 베 이삭도 자고(작고)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나지 않았어.

면담자: 농사 지으셨어요? 논 농사 밭농사 그 당시에 평창이면은 논 농사도 있었어요?

구술자: 예 있었어요. 강원도에

면담자: 그러셨군요.

구술자: 논 많았는데

면담자: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한국전쟁 나면서 어디로 피난 다니지 않으셨어요?

구술자: 피난 안 갔어요 그냥 그 자리. 우리 큰아버지, 큰아버지 아들,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작은아버지 이렇게 5명만 가고 우리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셔 갖고 이제 애들하고 작은엄마 큰엄마들은 다 있었어요. 그 다섯 분만 이제 저 뭐라 경상도로 피난 가고 우리들만 있었지. 그래 가지고 전쟁을 겪은 거지. 그래가지고 많이 죽었어. 우리

면담자: 그 동네에서

구술자: 내 위에 언니도 맞아서 죽었지. 사촌도 죽었지. 다 죽었어. 그때 맞아가지고. 포격 맞아가지고.

면담자: 그러면은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남자분들만 피난을 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해가 안돼.

구술자: 그러니까 쓸 만한 사람만 가고. 그리고 어린 것들을 데리고 가니 어떻게 건사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다섯만 가고.

면담자: 어른 남자 어른 다섯 분만 가고.

구술자: 어른이나 되간. 그때 오빠 뭐 한 열 몇 살 됐지.

면담자: 그러니까 아무튼 남성만.

구술자: 남자들만 그래 가고 여자들하고 애들은 다 하나도 못 갔어.

할아버지 때문에 어떤 반공호도 못 갔어.

면담자: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구술자: 그때는 병원이 어디 있어 집이지.

면담자: 집에서 이제 병 간호 해야 되니까

구술자: 병원에 계시니까 그냥 집도 이제 이렇게 근처 근처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근데 그 고통은 다 겪었지. 뭐 포알 날러 가고 하는 것도 다 밤이면 빨간 불이 가고 하는 거 다 보이고. 더 터지고 하는 것도 다 겪고. 옆에서 터져도 그거 다 겪고 살았어.
면담자: 그러면 막 총탄이나 이런 거 피해서 반공호 이런 데 숨으셨어요?
구술자: 그 해 또 눈도 많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애들은 전부 산에다가 큰 소나무 뒤에다가 앉혀 놓는 거야 애들은 다. 그러면 애들이 눈에 녹아가지고 막 쑥 들어가 있고 그랬어. 아주 어렵게 살았어. 6.25.
면담자: 저 살림살이도 어렵지만
구술자: 살림살이보다 아주 6.25 전쟁 때문에. 6.25 때 이북 그 사람들이 전부 내려와서, 먼저 내려와서 강원도 우리 그 동네는 이북놈들 꽉 찼었어.
면담자: 아 강원도 그쪽이
구술자: 전쟁터였어. 우리 사는데는.
면담자: 그러셨군요. 그럼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구술자: 결혼 스물하나에요.
면담자: 그러면 42년에다 (21년 더하면) 63년도 이때쯤이시네요.
구술자: 63년도에 내가 우리 딸을 낳았는데 그 해 결혼하고 그 해 낳았어.
면담자: 강원도 평창에서 결혼 생활도 시작하셨어요? 그럼 배우자 남편분도 같은 동네에요?
구술자: 둘이 초등학교 동창이야.
면담자: 아 동창 연애해서 결혼한
구술자: 연애가 어디 있어? 시골에
면담자: 어른들이 맞선 주선해서
구술자: 3년을, 우리 시댁 할아버지 한문 선생하고 하는데 지관, 이제 산자리 잡고 지관 하고 이러셨는데, 동창이라도 같이 졸업하고는 떠났으니 모르지. 졸업만 같이 했지. 우리 시아버지 초등학교 선생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4학년 때 됐고 전근 와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헤어져서 모르지. 우리는. 근데 할아버지가 시골에 계시면서 날 본 거여. 친정에서 있는데 이제 우리 시할아버지가
면담자: 눈여겨보셨구나.
구술자: 우리 친정에서 외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제 묘자리 잡아줘 그거 하시거든. 우리 할아버지가 시할아버지가. 그것도 하시고 한문도 가리키는. 이름도 지어주고 이런 걸 다 하셨어. 우리 시할아버지가. 그랬더니 박정희 정치 때 우리 할아버지가 글짓기대회 경포대 가가지고 장원 해가지고 황소도 탔어. 내가 결혼하던 해에. 결혼하던 해 봄에. 나는 이제 음력으로 1월에 했거든. 1월달에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이제 3월인가 얼마쯤에 이제 글짓기 대회를 갔어.
그 평창에서 군수 양반이 와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 모시고 가서 글짓기 대회 했는데 거기서

장원을 하신 거여. 그래가지고 황소 타가지고 그 황소를 하면 한 3~4일은 끌고 왔을 거야. 차에다 못 실고. 강릉에서 집에까지 끌고 오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거 다 잔치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 복 있는 여자라고 대우 많이 받았어. 할아버지한테.

면담자: 그러니깐요.

구술자: 그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시아버지도 선생이지. 같이 배웠지. 그래가지고 신랑은 동창이야 초등학교 동창.

면담자: 그러면은 그 당시 선생님이셨던 시아버님 눈에 이제 며느리감으로 딱 찍어놓으셨네요.

구술자: 할아버지가 그랬지. 우리 시아버지는 딴 데 가서 선생하고.

면담자: 거기서 선생님 하신 게 아니라.

구술자: 거기서 하고도 전근 갔지. 딴 데로 전근 가셨지. 그래놓고 시아버지는 날 모르지.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한문 가르치고 묫자리 잡고 있다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나 보고

면담자: 어머니 되게 미인이셨겠어요?

구술자: 그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면담자: 아니요. 지금도 고우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를 연결을 해 주신 거네요. 결혼하시고 이제 평창에 계속 사신 거예요? 인천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구술자: 거기서 이제 살다가, 애들 셋 거기서 다 낳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영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아저씨라고 그래야 되나? 애들 공부 가르치겠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공부 가르킨다는 건 반대 안 해요. 그리고 작은 시아버지 선생. 다 그래. 우리 할아버지는 그 교육을

면담자: 교육자 집안.

3. 인천으로 이사오게 된 배경과 처음 거주지와 일 시작 (00:10:48~00:19:29)

구술자: 그래가지고 애들 공부 가르친다니까 그럼 가라 그래가지고 열로(이리로) 올라온 거지

면담자: 시할아버지의 권유로. 그러면 왜 인천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구술자: 남편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면담자: 어떻게 아는 분들이실까요?

구술자: 시골 동네에서 같이 살다가 그 사람들이 먼저 인천에 와서 살으니까. 이렇게 연줄로 알아가지고 이제 올라온 거지.

면담자: 그럼 인천으로 올라오셔서 그 배우자 남편분께서는 무슨 일 하셨어요?

구술자: 처음에는 많이 놀았죠. 이것도 담배공장이라고 있었어요.

동양화학 거기서 얼마 안 떨어졌어. 담배공장 있어. 거기다녔어.

면담자: 담배공장 이름이 뭔지는 모르시고

구술자: 청구화학. 청구화학이라 그랬나 청구화학이라고. 그래 입초도 막 어떤 데는 갖고고(가져오고) 그러더라고.

면담자: 인천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사셨던 동네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지난번에

구술자: 동양화학 뒤쪽인데 그 동네 이름은 모르겠네. 동양 뒤쪽에.

면담자: 오동백이가 아니었나요.

구술자: 거기 와서 며칠 있다가 오동백이로 올라온 거지. 그 친구네 집에서 며칠 묵어 갖고, 이제 방 얻어갖고

면담자: 오동백이에서 오래 사신 거네요. 그러면은 인천에 오시면서 남편분은 담배공장에 취업을 하시고 동시에 함께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술자: 저는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집에 좀 있다가, 아무래도 혼자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내가 또 나섰지. 못 다니게 하는데도 애들 셋에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하고, 여기 올라오니까 뭐 다 낯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같이 벌려고 나섰던 거지.

면담자: 그러면 그때 처음 시작한 일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도라지 까기 이런 거 부업으로.

구술자: 뜨개질도 많이하고.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알게 되니까 직장 생활을 한 거지.

면담자: 그러면서 직장 들어가신 데가 농약 공장이 먼저예요?

구술자: 키타 공장도 다니고

면담자: 기타 만드는 데 악기 만드는 공장에. 그리고 농약 공장 다니시고

구술자: 거 다닌지 얼마 안되고. 그때는 나이를 엄청 따졌어요. 그때 나이 많지도 않은데도 나이 많다고 안써주고.

면담자: 혹시 결혼했다고 안 써주고.

구술자: 그런 건 없는데 나이가 많다고

면담자: 30대이셨을 것 같은데

구술자: 그렇지. 30대 넘었지.

면담자: 그래서 농약공장은 바로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한일 방직 들어가신 거죠.

구술자: 한일방직도 한 1~ 2년 다녔으려나. 다른 데 더 좋은 데 가느라고

면담자: 그럼 한일방직에서 하신 일은, 미싱하셨어요?

구술자: 거기 미싱 하는 데가 아니고, (원단을) 만드는 데예요. 실 뽑아가지고 솜뭉치를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크게 나오면 그게 차츰차츰 내려가지고 가는 광목 실이 되는 거예요.

박인옥: 일종의 원단을 만드는 거네요? 그 실을 뽑아서 원단을 만든

구술자: 그래 가지고 짜지.

면담자: 원단 짜고

구술자: 기계가 짜니까

면담자: 근데 거기는 왜 그만두시게 됐어요

구술자: 그건 모르겠네. 더 좋은 데로 가느라고 나갔겠지 뭐. 월급 좀 더 주고. 나가 봐도 별 볼 일 없는데도 그래도 더 좋은 데로. 한 푼 더 받으려고.

면담자: 아 네. 농약 공장이나 한일 방직 다닐 때, 이 일이 특별히 어렵다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구술자: 농약 공장은 힘들죠. 농약 공장 사람들 쓰러지고 막 그러는.

면담자: 그때는 무슨 일 하셨어요? 농약공장

구술자: 분제(가루 농약)도 하고 유제(액체 농약)도 하고.

면담자: 포장 작게 나누는 거? 분재가?

구술자: 그렇게 기계를 잘 봐. 그때도 유제장에 들어가가지고 약 제품 뽑았어요. 제품 뽑았다고. 약을 뽑았어요. 기계에 앉아 갖고. 그래 밑에서 사람들이 쫙 앉아가지고 초벌 병 뚜껑 덮고, 그다음에 또 덮고 쭉 양쪽으로 앉아가지고. 나는 약을 뽑아서 이렇게 쭉 내려보내면 밑에서 그렇게 전부 병뚜껑 막고. 그래가지고 저 밑에서 포장하고. 만들어진 거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나는 병에다가 기계를 뽑지. 병이 한꺼번에 그게 쫙 들어가서 쫙 내려가고 쫙 내려가 쫙. 위에서 제품을 해서 통에다 주면 밑에서 그 약을 뽑아야지. 뽑아가지고 아래로 내려보내면 아래에서도 두 줄로 앉아갖고 처음에 그 고무마개 막는 거 그다음에 위에 또 그 깡통 같은 그런 거 그거 막는 사람 양쪽에 마주 앉아.

박인옥: 원료가 나와서 이 병에 담겨 있는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 과정에서 처음 작업을 하신 거죠.

구술자: 내가 그 약을 뽑아서 병에다 넣고 병을 이렇게 쭉 내려밀면 병이 서서 내려가는거.

면담자: 약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그거를 병에다 이제 넣고, 결국에는 그것도 포장 비슷한 거네요.

구술자: 그렇죠. 내가 제품을 받아주면 밑에서들은 이제 막고. 그 밑에다 곽에다(박스) 넣고 포장하고. 기계도 전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퍼가지고 넣어가지고. 저울에 달아가지고. 제품이 독해갖고 여기 들어가면 콧물 눈물이 범벅이여 독해갖고. 그래 [얼굴을 가리키시며]여(여기)가 막 빨개 가지고.

면담자: 그때가 한 75년 76년 그렇게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구술자: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써가지고.

박인옥: 기업들은 그거 신경 안 써요.

면담자: 그럼 그때도 농약 공장이나 한일방직에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술자: 그건 다 여성이지

면담자: 마지막 공장 포장하고 이러는 거는 거의 여성 노동자들이 했군요.

구술자: 남자도 드문드문 있지만 그 포장 과정도 다 여자여

면담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기계 앞에서 작업하는 걸 했기 때문에 동양화학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낯설진 않으셨겠어요? 기계 다루는 거, 기계 앞에 서는 거가.

구술자: 나는 전기 같은 거 엔간한 거 좀 만지고 막 그래. 그리고 어떻게 자꾸 그런 것만 보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면담자: 공장 안에 돌아가는 기계가 무섭고 이렇지 않으셨나 봐요.

구술자: 그랬으면 안 했지.

면담자: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술자: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면담자: 살기 위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구술자: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4. 동양화학에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맡게 된 일과 작업 과정(00:19:30~00:26:38)

면담자: 동양화학에 몇 년도에 입사하셨다고 그랬죠? 75년도에 인천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구술자: 와가지고 또 딴 데 많이 다니다가 거기 가서

면담자: 지난번에 동양화학에 입사하신 연도 말씀 안 하셨었나. 그러면 이제 동양화학에서 일하셨던 얘기 좀 한번 들어볼게요. 그때 동네 분이 소개를 해서 동양화학에 들어가게 됐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소개했던 분들하고 함께 입사하진 않으셨어요? 혼자 들어가셨어요?

구술자: (그전에는) 여자들은 안 썼는데, 여자들을 쓴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서는 한번 가봤지. 가봐 가지고 그냥.

면담자: 그냥 주변 동네에서 동양화학 얘기를 오고 가고 했던 거죠. 그럼 동양화학에서 이미 일하고 있던 분이 소개를 해 주신 거예요?

구술자: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얼마 일을 하지않은 것 같아. 다 비슷비슷해서 한꺼번에 간 것 같아. 뽑는다 하니까 한꺼번에 가가지고.

면담자: 금방 그만둔 분들 많고.

구술자: 서로 다 잘 모르는 그런 상태. 그래가지고 들어간 거야.

면담자: 그중에 오랫동안 일하신 거잖아요. 일하시면서 다른 주변 이웃들에게 추천을 한 적 있으세요? 여기 동양화학 괜찮으니까 와서 일해 봐라.

구술자: 내가 힘들고 약이 독하고 그러니까 소개 못 했어. 온다그래도 야 오지 마라. 우리는 어차피 발을 들여놨고 그래 다니니까 그렇지 못 베긴다 오지마라. 그리고 안 했어요. 하지도 못해요. 그 20kg짜리 약포대 하루 종일 해야 하는데.

면담자: 들을수록 그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게 참 존경스러워요.

구술자: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래. 그 일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면담자: 그 부분은 이따가 조금 더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동양화학에 출근한 첫날 기억하세요?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구술자: 기분이 뭐, 가슴이 호닥호닥하지. 설레고. 아무래도 기가 죽고 그렇지. 맨(모두) 남자들인데

면담자: 긴장되시고 그랬구나. 무슨 일인지는 모르고 들어가신 거죠.

구술자: 포장한다 얘기는 들었는데, 포장만 하는 게 아니고 TT[1]라고 하는 제품이 내려오는데 넓은 갑바(천) 같은 그런 쪽에서, 위에서 남자들이 이제 (작업)해가지고 그리로 내려오면 그게 탈수가 되는 거야. 그 천에 제품이 떨어지면 물이 밑으로 세면서 탈수가 되면서 내려와. 내려오면 밑에 이런 통 큰 게 있는데 내려와서 모여져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또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철망 같이 이렇게 깔린 위에다가 보재기를 깔아. 보재기를 깔고 삽으로 떠서 거기다 올려가지고 그것도 손으로 다 페워요.(펼친다는뜻)

그래가지고 키가 높은 데 글로 사이 사이에 껴 갖고 그걸 건조실로 당기고 밀고 끌어서 건조실에다 넣어가지고 또 건조시켜요. 그걸 다. 건조가 되면 그걸 끌어내 가지고 또 그런 통에다가 또 털어. 보자기고 뭐고 다 털고. 약 제품이 얼마나 날리는지 계속 그런 거를 그냥.

면담자: 일단 그 가루가 가루 이름이

구술자: 그 TT라고 그런 것 같아. TT[2]

면담자: 화이트 카본, 화이트 카본이에요. 그러니까 가황 촉진제. 고무를 탄탄하게 만드는 그건데 이름이 화이트 카본. 하얀색이었었죠. 검정색 가루도 있는데 선생님이 하신 데는 화이트 카본이라고 그래서

구술자: 우리는 TT라고 그래요. 다 해가지고 도장 지대라고 하는 푸대에다 찍어야 돼.

면담자: 그 가루 이름을 TT라고 부르셨어요?

구술자: 우리가 TT라고 그런 것 같아. 또 노란 가루는 M이라고 그런 것 같아.

노란 가루도 있었어요. 노란 거는 이제 얇은 고무장갑 같은 원료. 그것도 다 원료가 따로 있어요. 그 타이어 만드는 거 또 억센 고무 만드는 거 보드란(부드러운) 거 만드는 거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

면담자: 지난번에는 푸대자루에 가루가 실려 오면 그 입구만 미싱으로 막는 일만 설명을 해 주셔서 그랬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가루가 쏟아져 나오면 삽으로 그 철판에 해서 말리는 것부터 또 말린 거를 다시 또.

---

1) 화이트 카본을 일컫는 말인데, 화이트 카본은 고무, 플라스틱의 보강재로 사용되는 백색 분말성 충전재로 내마모성, 강도, 내열성 향상에 기여한다.

2) 화이트카본(하얀가루)는 티티(T.T) 노란가루는 엠(M)이라고 포대(푸대)에 '도장 지대'라고 불리는 표시 구역이 있었고 거기에 제품 기호를 TT. M이라고 찍었다는 뜻.

구술자: 털어 가지고 통에다 넣어가지고, 남자한테 달아 올려가지고 그 위에서 또 분쇄를 해 그거를. 그러면 또 그 가루를 밑에서 받아야 되니까. 가만히 들어와 생각을 해본 거야. 그 일한 거.

면담자: 기억하셨구나

구술자: 한두 가지가 아니여.

면담자: 그러니깐요.

구술자: 한두 가지가 아녀. 밑에다 파레트 갖다 놓고 큰 빽자루 갖다 걸고는 그 위에다 제품을 받아 걸로(거기로)

면담자: 파레트라는 거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냥 넓은 판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술자: 그럼요. 이만한 데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지게차로 떠가는 그걸 파레트라고 그랬어.[3] 우리는.

박인옥: 지금도 빠레트라고 얘기해요.

구술자: 또 우리들이 거기다가 딸딸이(자키)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걸 끌고 다니고 그랬어요. 엄청 힘들어.

면담자: 무게가 엄청 날 텐데.

구술자: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사람들이 온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엔간해야 오지. 힘들어서. 아주 제품이 종류가 많으니 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돌아가는 그런 걸 다 하니까.

면담자: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셨는데도 처음에 일용직으로 들어가셔서 나중에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시켜줬어요.

구술자: 남자들도 안 시켜줘.

면담자: 남자들도 그 일은 그 일만. 그 부서만.

구술자: 그 부서만이 아니라 그 안에 소다 공장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면담자: 일용직으로 채용을 많이 했던 시절이라

구술자: 일용직을 많이 채용해.

면담자: 네. 네.

5.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00:26:39~00:29:09)

면담자: 그러면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그런 화학 공장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구술자: 일하는 사람 주위에?

면담자: 그러니까 흔히 그때 공장 여성 노동자들 보고 여공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

3) 구멍이 뚫린 넓은 판. 그 밑에 지게차를 넣어 떠올림.

구로공단의 여공. 여공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그 여공에 대한 인식이 주변에서 어땠을까요?
구술자: 주변에서 아저씨들은 아줌마들 대단하다 그러지. 대단하다. 진짜 여기 아줌마들은 진짜 대단하다. 이런 말. 남자도 일을 같이 했으니까.
면담자: 그럼 혹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녀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때 보니까 엄마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큰 따님도 잘 모르시던데. '엄마 그만 다녀' 이런 말은 없었어요?
구술자: 그런 거 없었어. 그만다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면담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일을 하는 거로 결정이 돼서 들어가신 거죠
구술자: 그렇죠. 처음에는 포장도 하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좀 댕기고 안 당기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 갖고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날 정도야. 너무너무 힘들어서, 팔 아프고 다리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 댕기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댕겼더라고
면담자: 나중에 좀 단련이 돼서, 적응이 돼서 그렇게 다니게 되셨나 봐요.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그렇게 힘든 일을,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일을 선생님보다 더 오래 다닌 분 있으세요?
구술자: 여자는 없죠
면담자: 남자분은 있어요?
구술자: 남자분도 다 또래 또 그때 또래 또래야. 그때는 용역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처음에는 없었어. 그 용역이라고 생기고 부텀 그게 다 채용된 거야. 그 용역 생기면서 채용이 된 거야.
면담자: 그러니까 동양화학하고 직접 계약을 한 거죠. 일용직이지만. 어디 다른 회사 소속이 아니라. 용역이 아니라.
구술자: 작업복 같은 것도 다 같이 나오고

6. 동양화학에 오래 다니게 된 배경(00:29:10~00:31:03)

면담자: 그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게 된 그 이유, 아니면은 어떤 힘으로 그렇게 일을 오랫동안 하셨을까요?
구술자: 집에서 걸어가니까 거리가 가깝고.
면담자: 일단 출근 거리 가깝고
구술자: 거리가 가깝고 그냥 다니던 데니 그냥 다니자 그렇게 하며 다닌 것 같아. 딴 데 가면 교통비 들어가고 뭣 들어가고 그러니, 이제 그런 거 따지고 해갖고. 큰아들 대학교 다닐 때도 내가 이제 통근버스 타고 가거나, 일반 버스를 탈 때도 있고. 어떨 때 막 뛰다시피 걸어 갈 때도 있어. 차비 아끼느라고. 그러면 회사에다 저금통 이만한 걸 놓고 내가 걸어가면은 차비 거다 넣고.
면담자: 하이고 엄청 알뜰하게 사셨구나.

구술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도 자식들은

면담자: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구술자: 그래 가지고 이제 애들 책 사주려면 그거 갖고 가서 책을 사주고, 또 납부금 내잖아. 1년에 두 번 내잖아. 그것도 마련하려면 또 그렇게 하고. 우리 아저씨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이야.

면담자: 그러면 그때 남편분 계속 일하셨어요? 저기 청구화학. 금방 그만두셨나요.

구술자: 에이 이런 얘기는 하면 안돼.

면담자: 네네 하시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러셨구나

구술자: 그렇게 해가지고 모으면 몇만 원씩 되더라고. 책 한 번씩 살려면 또 돈도 1천 원 가지고 사나? 3~ 4만원 4~5만 원 들어요. 책을 사려면.

7. 가족과 삶(00:31:04~00:34:53)

면담자: 자녀분은 몇 남매 두셨어요?

구술자: 2남 1녀.

면담자: 2남 1녀. 그러면은 동양화학은 막내가 대학 들어갈 때 그만두신 건가요? 아이들 공부 다 끝나고 그만두셨어요? 막내까지 공부 다 끝나고 학비 다 대시고 그렇게 된 셈이네요.

구술자: 그럼요. 그래도 우리 딸도 일을 저질러 놓으면 내가 어떻게든 해낼 수가 있으니까 '가려면 가라. 학교 가라.' 그랬는데 지가 포기하더라고

면담자: 큰 딸은 동생들 생각해서.

구술자: 연년생이여 지 동생하고. 한 해 차이. 한 학년 차이. 저지르면 어떻게든지 버텨 나갈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그랬지.

면담자: 특히 교육열 때문에 인천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큰딸도 공부하겠다고 하면 그냥 시켰을텐데.

구술자: 그땐 가라 하니 안 갔더니, 지금은 나한테 말하는 게 안 가고 후회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 가지 말라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했어. 그 일을 저질러 놓으면 어떻게 돼 가겠지.

면담자: 그렇죠. 안 보내지는 않으셨겠죠. 대학에 들어가겠다 하면.

지금 고생한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눈물이 글썽하셨는데 자식들은 하나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를 평생에 걸쳐서 자식들 앞에서 얘기할 못하세요. 근데 이렇게 녹음을 하고 기록에 남기잖아요. 내년에 책으로도 낼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식들이 읽으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피난 시절 어려웠던 시절 얘기를 자식 앞에서 본 적이 해본 적이 없으신데 그 책을 자손들이 보게 되면 그 시절을 이해를 하는 거죠.

구술자: 내가 쉬지 않고 맨날 나가야 하니까. 나도 쉬고 싶고 애들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쉬고도 싶지. 그렇지만 그러지 못할 상황이니까 그냥 가지. 애들도 고생 많이 했지. 지금도

애들 생각하면 미안하지. 내가 애들 제대로 못해주고 우리 딸도 고생 많이 했지. 집에서 지 동생 교복 다 빨아주지, 집에서 엄마가 늦게 오면은 밥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하고. 학교 다니면서. 항상 딸한테 미안하지. 그렇지만 노상 미안하다 미안하다 소리하기도 그렇고, 나도 회사에서 일 암만 힘들게 하고 와도 집에 오면 애들한테 일이 힘들었다는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면담자: 그렇죠. 자식들 앞에서 못하죠. 네.

구술자: 한 마디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세월 살았는지 몰라. 근데 지금 이래 곰곰이 생각하면 애들한테 미안한 점이 많지.

8. 작업장 분위기와 환경(00:34:54~00:40:44)

면담자: 네. 그 이야기는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이어서 할게요. 일하시면서 몸은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동료들하고 어떻게 얘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분위기 어땠어요?

구술자: 서로 장난해 가면 얘기하고 웃고 그래야지. 맨날 그렇게 힘들게.

면담자: 그렇죠, 혼자서 묵묵히 일만 할 순 없죠.

구술자: 그리고 내가 성질이, 이렇게 설렁설렁 분위기를 잘 맞추거든. 내가 없는 날은 심심하다 그래.

면담자: 생각이 긍정적이시기도 한가 봐요. 혹시 일하시는 동안 기억에 남는 이야기 있으세요? 무슨 재밌는 이야기든지, 지난번에는 사고 당했던 그런 거 말고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동료라든가 어떤 이야기 있으세요? 떠오르는 장면.

구술자: 하도 힘들었고, 그래서 힘든 거는 잊고 즐겁게 일을 하고 서로가 그럴려고 그랬는데, 재미있게 일 잘하고 그런 추억이 생각나요.

면담자: 일 마치고 어디 같이 저녁 먹으러 다닌다거나 이렇게도 못하셨겠네요. 밤늦게까지 작업하셔서.

구술자: 회식도 한 번도 못가고. 그런 데 가려면 애들 집에 놔두고 가는 게 걸리고 해 갖고. 난 애들 그렇게 놔두고 나 혼자 놀러 간다고 가본 역사가 없어.

면담자: 쉬는 날이 거의 없으셨으니까. 새인천 풀장 다니고 이런 기억은 없으세요? 동양화학에서 만든 새인천 풀장이 있는 거는 기억하시죠? 직원들은 같이 거기로 휴가 때 놀러 다니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구술자: 이제 1년에 한 번씩 생일 케익 주면 그거 갖다가 애들하고는.

면담자: 그 당시에 마스크나 장갑이나 작업복 착장을 하셨잖아요.

구술자: 다 거기서 주니까. 여름에도 여름에도 마스크. 마스크 속에다 가재(거즈)를 또 대야 돼.

면담자: 마스크 속에다가? 가루 들어오지 못하게

구술자: 네 가재 이만한 거 착착 접어가지고 속에 넣고, 위에다 마스크 쓰고 우비 입으면 우비 모자 쓰지 이렇게 짬매지.

면담자: 장갑 끼고

구술자: 장갑도 면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여름에도 그렇게.

면담자: 여름에 에어컨 시설 있었어요?

구술자: 그 넓은 현장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 대형 선풍기.

면담자: 선풍기

구술자: 여기저기 대형 선풍기 하나씩 있어.

면담자: 선풍기 틀면 그 가루가 다 날릴텐데.

구술자: 그래서 잘 안 틀으려고 그래.

면담자: 어머나.

구술자: 그 가루가 이제 피해 나가는 쪽으로 틀어 놓지

면담자: 굉장히 더우셨겠어요. 그럼 히터는 날리지 않으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게 난방 장치 했어요?

구술자: 그렇게 하면 여름보다야 낫지.

면담자: 그렇죠. 그러셨겠어요..

구술자: 그렇게 써도 그 독한 약을, 막 [얼굴을 가리키며] 여가(여기가) 때끔때끔해 여가 뻘개가지고 막 해요. 빨개가지고. 그런데 일로 다 날라 들어가지.

면담자: 그거로 인해서 병원에 다닌 적은 없으세요? 기관지, 폐로 이제 그 가루가 다 들어가잖아요.

구술자:병원에 다닌 적은 없어.

면담자: 어떤 증세는 특별한 증세는 없으셨나 봐요.

구술자: 네

면담자: 그때 여름 휴가 있었어요?

구술자: 여름 휴가?

면담자: 여름 휴가

구술자: 우리 휴가 없는데.

면담자: 휴가도 없으셨어?.

구술자: 동양화학은 365일 계속 가동을 하니까, 우리는 교대도 안하지. 우리는 제품 빼주기 때문에 맨날 나가야 하니까.

면담자: 휴가 받은 기억이 없으시군요. 그 당시 급여가 지난번에 한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용직이면 해마다 급여가 오르지도 않았어요?

구술자: 오르기는 오르고.

면담자: 보너스 같은 거.

구술자: 보너스도 줘요.

면담자: 보너스도 있었고. 아무래도 일용직이지만 대기업이니만큼, 그런 대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구술자: 그래서 댕긴 것 같아.

면담자: 그렇죠. 돈이 제일 중요해요.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좀 있으신가 봐요. 만족하셨나 봐요.

구술자: 그래 하다 돈 타면 기분이 좋고.

면담자: 그렇죠. 맞아요.

구술자: 잔업하고 하고 그러니까. 수당은 여기 빨간 글씨 다 수당 다 나오지.

면담자: 빨간 글씨는 쉬셨어요?

구술자: 그거 이제 곱 주니까.(휴일에 근무하면 임금을 배로 받았다는 뜻)

면담자: 빨간 글씨는 일 안 하고 쉬셨어요?

구술자: 쉬는 날이 없다니까. 365일.

면담자: 그러고 보면 굉장히 건강하기도 하신 거예요.

구술자: 그래도 아파가지고 안 나간적은 없어.

9. 가족과 삶(00:40:45~00:47:08)

면담자: 그러니깐요.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엄마가 명절 때도 없고 빨간 글씨에도 없고. 나중에 퇴직하시고 나서 자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없어서 어땠다 라든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자식들이 하던가요?

구술자: 집에 들어와도 엄마가 없어서 집 오기 싫다고.

면담자: 맞아요. 명절 때 친정에 오면 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댁에서 보내고 오면 그래야 됐는데.

구술자: 집에 오면 뭐 안 시켰어. 나도 딸 많이 생각하고 많이 그랬지. 그랬는데도 불만족한 거야.

면담자: 특히 맏딸은.

구술자: 불만족해 얘는 항상. 나 듣는데도 엄마 고생했어 소리 안해. 그러는 게 서운해. 아주 고생하고 그랬는데 또 고생했다 소리를 못 들어요. 서운해. 그래도 그 서운하다 말 못해.

면담자: 내리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엄마는 무작정 자식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자식들은 엄마를, 부모를 이해 못하죠.

구술자: 그래도 아들들이고 뭐고 여지껏 살면서, 잘못한거 내가 말하면 잘못했든 안 했든 그냥 수긍해. 뭐라고 한 번 말 대답하고 나선 애들이 없어.

애들 자랑이 아니라 엄마가 뭐라 그래 그런 게 없었어. 애들이

면담자: 그게 엄마가 열심히 일하신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해서 본인들 다 뒷바라지한 거를 알죠.

구술자: 근데도 어떨 때는 엄마 고생했다 소리 한 마디 해도 좋은데, 좀 서운해.

면담자: 그래도 그 마음은 자식들은 다 알고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오랫동안 일을 하셨거든요. 큰딸, 특히 삼남매 중에서 큰딸이 엄마 없는 그거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가장 피해자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술자: 표현을 그렇게 해도 얘가 '야 너 이거 좀 해라. 이거 좀 해라.' 내가 시켜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해.

면담자: 엄마는 힘들고 바쁜데 집에 오면 왜 안 시키셨어요? 알아서 해서?

구술자: 뭘 안 해가지고 '이거 너 왜 안 했냐.'는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어. 얘는 뭐 해라 시켜보지 않았어. 지가 알아서 해. 지가 알아서 지 동생 교복 다 데려주지, 자기 교복 데리지. 그래 하는데 보면 안쓰럽지,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저걸 쟤가 저래 다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항상 마음속으로 미안하지 딸한테. 그런데 그거를 저한테 실제로 말 안 해준 게 서운한 거예요. 얘는.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미안하고 그래 시키는 게 안 됐지. 그랬는데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시켜갖고 한 적은 없어요. 지가 알아서 그렇게 했지.

면담자: 밥도 하고 그랬겠네요. 학교 다니면서.

구술자: 내가 자식 자랑이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그렇게 다 잘하니까 나는 믿고서는.

박인옥: 모녀 간의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면담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딸이 그렇게 자기가 힘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그 큰딸한테 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구술자: 사실 어려서는 친구들하고 많이 놀고 싶잖아요. 근데도 마음대로 나가 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시키지 않아도) 지가 하니까 나는 그걸 믿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지.

면담자: 그냥 미안하다는.

구술자: 미안하지. 안쓰럽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부려 먹은 게 마음이 아프죠.

안 해도 말 못하지. 안 해도. 안 한다 소리 못할 텐데 지가 그렇게 다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면담자: 평생을 이렇게 일을 쉬지 않고 하시면서 가정 경제를 일구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혼자의 힘으로.

구술자: 생활력이 없어

면담자: 누가요?

구술자: 우리 아저씨가. 그래서 내가. 딸은 나보고 엄마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안 한다고 나마저 안 해 봐 객지에 나와서.

10. 동양화학과 마을과의 관계(00:47:09~00:55:06)

면담자: 그렇죠. 평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5년도쯤에 인천 이 동네로 오셨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변했는데 어떤 점이 크게 달라졌다라고 느끼시나요?

구술자: 그러니까 그냥 남한테 손 안 내밀고

면담자: 아니 그 마을 모습, 마을 풍경. 75년도에 오셨을 때는 그때 논과 밭이 많았었고, 동양화학 공장도 철수하기 전과 같이 많지는 않았었잖아요. 계열사들이 한 군데 두 군데 생기기 시작을 했고, 크게 달라진 점이 뭐예요?

구술자: 그전에 판잣집 이런 것만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됐으면 엄청.

면담자: 고층 아파트 들어서고 상가들 많이 들어서고.

구술자: 그전에는 집도 하나 똑똑한 거 없었어. 학익 시장께 이런 데로. 신동아 같은 데도 그렇고 맨 풀밭이고 전부 그랬댔는데 지금 이거 얼마나 개발이.

면담자: 근데 그때는 저층 아파트도 전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된 거기에 삼경 아파트가 제일 먼저 섰다고 들었거든요.

구술자: 그게 맨 처음에 지은 거예요.

면담자: 그때 사진 없으시죠? 그 사진이 혹시 딸한테도 없을까요?

구술자: 없죠. 그전에 사진기도. 그전에는 똑똑한 거 하나도 없었어. 가게라고 가도 하꼬방[4] 같아가지고 그냥 컴컴한데 몇가지 놓고 팔고 그랬어요.

면담자: 그러면 75년도에 오실 때 이미 삼경 아파트가 있었어요?

구술자: 그때 막 새로 짓고 입주할 때지.

면담자: 그 뒤로 또 장미 아파트 들어서고 그 뒤로?

구술자: 그전에 아파트라고 하는 거 그게 제일 먼저 지은 거예요. 삼경 아파트. 그래가지고 그리로 이사 올 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면담자: 그 집을 계속 가지고 계셔서, 이제 재개발돼서 다시 들어가시게 됐네요.

구술자: 맨 처음에는 연탄, 기름, 이제 가스로 된 거지.

면담자: 맨 처음에 연탄.

구술자: 삼층 꼭대기 연탄 올리느라고, 아저씨들이 올려주면 돈 더 줘야 돼.

면담자: 그래도 판자촌이 많았는데, 아파트 입주를 하신 거면 생활이 좀 괜찮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인데?

---

4) 판자집의 일본어식 표현.

구술자: 시골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농사짓고 하던 땅 그거 팔아다가.
면담자: 네. 동양화학이라는 커다란 대기업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좋아진 점과 그다음에 힘들어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구술자: 힘들어진 건 소리. 돌 굴러내려가는 소리. 동네 사람들이 다들 싫어해. 처음에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 처음에는.
면담자: 밤에도 그렇게 작업을 했나 봐요.
구술자: 계속 하지. 밤 낮 없이. 팍 올라가 돌 내려보내고 그러죠. 다 보여요. 밑에서 오고 바로 내려오는 게.
면담자: 먼지 이런 것도 많았었겠어요. 좋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동양화학 뒷동네. 그 당시에는 땅이 너무 질퍽거려서 장화 신지 않으면 다닐 수도 없었다 그래요.
구술자: 그리고 물이 귀했어요. 거기.
면담자: 물이 귀했어요. 바다였잖아요?
구술자: 바다는 저기 했지만 우리 살던 동네 몇 개 없었어.
면담자: 먹는 물?
구술자: 물이 없어가지고 밤에 자지 못하고 먹으려면 이 우물물 밖에 없어. 수돗물이 없어.
면담자: 우물이 몇 개 있었어요? 동네에.
구술자: 우물 하나 있는데 그 동네 사람이 다 퍼나르니 그 우물이 당해내? 어떤 때 일 갔다오면 손 씻을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딸 지금도 그 얘기하지. 그놈의 물 푸느라고 물 퍼 나르느라고 (힘들었다고). 물이 이만큼 고이면 푸고 푸고, 전부 가서 기다리고 서는 거야. 줄 서서. 그래가지고 빨래 같은 거 해도 동양화학 저 산 꼭대기 올라가면요. 도랑에서 내려온 물이 있어 산골에서. 그럼 거가 빨래를 하는 거야. 거기가 빨래 해가지고 모퉁에다 널어놨다가, 저녁에 애들하고 가서 놀면서 거기서 빨래해서 널어놓고 있다가 이제 저녁에 내려올 때 걷어가지고 내려오고 그러죠. 빨래도 거기 가서 했어요 물이 없어서. 그건 자연으로 내려오는 물이 있었어.
면담자: 그때 동양화학은 수도 시설 있었을 텐데, 수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았을걸.
구술자: 그래서 내가 빨래를 동양화학에 가지고 가서 했어. 아침에 출근할 때. 일찍 해가지고 수도 가서 빨래를 해가지고, 겨울에 이제 스팀 있잖아요. 아저씨들 보고 파이프를 매달라고 해가지고 빨래를 빨아서 거기다 놓고 나왔지. 집에 물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거기서 빨래를 빨아가지고. 이런 얘기해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면담자: 괜찮아요. 뭐 오래 지난 일이고 있을 수 있죠. 회사 가져 와서 빨래 조금 하는 거.
구술자: 빨아서 널어놓고 하루 종일 일하면 저녁에 말라. 거기다가 또 모다 해가지고.
면담자: 그럼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편리였겠네요.
구술자: 얼마나 마음이 바빠. 그래 해야지.

면담자: 그것도 맘 편케 하는 게 아니라 몰래 빨래를 했어야 되고.
구술자: 빨래 널구 하는 거 누가 봐도 그런 건 말 안 했어. 그때 내 욕심이 다 그런거지 빨래까지 하는. 그때는 또 세탁기도 없었어. 세탁기가 있으면 뭐해 물도 없는데.
면담자: 그래서 그때 막 질퍽한 땅에다가 동양화학에서 도로 포장해 주고 그런 거 기억하세요? 동양화학 뒷동네에 도로 포장해 주고 했었다고 하던데 땅이 너무 질퍽거렸던 그런 기억은 없으세요?
구술자: 그런 기억도 잘 안 나. 그럴 때 신경 쓸 일이.
면담자: 여기가 이제 매립지고 하니까 주변.
구술자: 하여튼 비가 오면 다 궁작궁작 한다. 여서져서(여기저기서) 물줄기들 내려오고 이렇게 아주 지저분했어.
면담자: 생일 때 이제 선물도 받으시고 그런 잔재미 이런 것도 무시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옥시크린도 받으시고 물 먹는하마도 받으시고.
구술자: 무슨 기념 같을 때 그런 걸 선물 주고, 꼭 명절 때면 꼭 선물세트 같은 거 챙겨주고 그래. 그것도 받을 때는 또 기분이 좋아.
면담자: 재밌죠. 기분 좋죠. 네.
구술자: 사 쓰는 것도 주면 이제 그런 거 쓰고

11. 옛 시절 여성 노동과 한국 사회(00:55:07~1:02:29)

면담자: 농약공장하고 직물공장에 다니실 때 하고, 여기 동양화학 공장에 다닐 때 하고 뭐가 차이가 날까요?
구술자: 돈도 좀 더. 일은 힘들어. 거기는 일이 힘들지. 근데 한일방직 같은 데는 교대 근무를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교대 근무도 안 하고 노는 날도 없고 우리는 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는 날 없는 게 더 좋더라.
면담자: 그렇죠. 급여가 높았던 거가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거죠. 여성분으로서 화학공장에 서 일하신다는 거가 자랑스러우셨어요? 어떠셨어요?
구술자: 자랑스럽다고 생각 안 해.
면담자: 그래도 부끄러운 건 또 아니었었죠. 그래도 공장에서, 집에서 부업 잔 부업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구술자: 돈이 좀 나아.
면담자: 예. 회사에 다니신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구술자: 가까우니 맨날 작업복 입고 왔다 갔다 해.
면담자: 되돌아서 생각을 해 보시면 그 당시에 여성 노동자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어땠었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구술자: 없어서 남한테 손 빌린 것보다 내 육신을 움직여 갖고 내가 이렇게 벌어서 쓰니까 떳떳하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그렇죠 그러면서 자녀들 다 가르치시고.
구술자: 남들은 먹을 거 없다고, 우리 그때만 해도 먹을 거 없어 쩔쩔매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 밥이라도 먹인다고 그냥 열심히. 그렇다고 해서 자부심 갖고 다녔어.
면담자: 네. 그러면은 당시 생활이 되게 쪼들렸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으셨던 거죠.
구술자: 넉넉하지는 않아요.
면담자: 넉넉하지는 않지만
구술자: 높은 급여 아니더라도 그럭그럭 마가지고(모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
면담자: 네. 네.
구술자: 다 나보고 억척시럽다고 그랬어. 억척시럽다고 그랬어.
박인옥: 그렇게 하시니까 아드님 두 분 대학 보내시고
구술자: 나보고 억척시럽다고 그래
면담자: 아들 두 분은 다 대학 나왔어요?
구술자: 근데 우리 작은아들은 댕기더니 안 댕기더라고. 가랬더니 안 갔대. '엄마 형만 보내. 형만 가르쳐.' '너 어떡 하려고 그래.' '아이 엄마. 나 나중에 돈 마가지고 장사할래.' 그래 하기 싫은 공부를 맨날 하라고 그러니까 '엄마 형만 가르켜. 형만 가르켜.'
면담자: 그 동네에 자녀분들이 동양화학에 취업한 경우도 좀 있거든요. 선생님은 아들이나 딸, 자제분들을 동양화학에 취직시킬 생각은 한 적이 없으세요?
구술자: 내가 시켰었는데. 우리 막내.
면담자: 막내 아들 대학 중간에 그만두고 군에 갔다 오고 나서 동양화학에.
구술자: 걔는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면담자: 정규직으로 무슨 일 했었어요? 둘째 아들이.
구술자: 나 일하는데 거기 제품 그거 하는데, 그 위에서 기계도 보고 제품 만드는거. 아무튼 생산 현장에서, 근데 얼마 못 다녔어요. 그래도 걔가 버는 돈은 내가 하나도 안 쓰고, 내 돈을 가지고 용돈 주고 걔 버는 걸 저금하고 해갖고 삼경아파트를(학익동 최초의 아파트) 사줬지. 결혼하고
면담자: 왜 그만두게 됐어요?
구술자: 누가 아들?
면담자: 작은 아들.
구술자: 이제 거기서들 다 저로 이사 가니까.
면담자: 아 군산.
구술자: 이쪽으로 다 지방.

면담자: 그때까지 다녔으면 오랫동안.

구술자: 꽤 잘 다녔어.

면담자: 그러시구나.

구술자: 다니면서 그 돈 모아가지고 집 사는데, 내가 조금 보태줘가지고 집 사고. 집 얻는 거 그냥 만 거지(모은거지)

박은옥: 2004년도까지 근무하신거예요? 아들이

면담자: 2004년도에 지방으로 공장이 옮겼어요.

구술자: 그래 그때는 뭐 여기서 내려가고 어쩌고 하니까 안다니고,

면담자: 그러니까 막내가 지금 57살 그러면 한 30살까지는 다녔네요.

구술자: 결혼하고서도 다녔는데 얼마나 다녔는지.

박인옥: 2018년 철거된 거니까. 2004년 생산 중단을 하고.

구술자: 내가 다 말해 갖고 들어갔지.

면담자: 큰아드님은 전공이? 큰아드님은 동양화학에 (다니진 않으셨나요?)

구술자: 큰아들은 한국통신. 한국통신.

면담자: 통신. 전공이 많이 다른 쪽이었었나 보다. IT쪽인거 보니까.

구술자: 우리 큰아들도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았어.

면담자: 그럼 동양학에 취업할 생각은 안 했었어요.

구술자: 우리 아들 대학 나와가지고 시험 봐 갖고 그냥 한국통신. 군대 갔다 와서 대학 마저 마치고 됐는데. 대학을 몇 점 차이로 서울대 간다 했는데 그걸 못 갔다고 재수한대. 야 재수해서 뭐 하냐 재수해도 또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는데 그랬는데 그때 학교 그만두고 학원을 다니더라고. 학원을 또 1년 다니대. 그러더니 인하대 졸업을 하고. 그래가고 인하대 다녔는데 인하대에서 졸업하고 처음에 들어가서 장학금도 탔어요.

면담자: 네. 그랬더니

구술자: 1년 하고 시험을 보더니 한국통신에 붙은 거예요. 그 신문에 났더라고 보니까. 그때 기분이 그래 좋을 수가.

면담자: 좋은 회사 들어갔으니까 기분이 제일 좋죠.

구술자: 처음에 안성으로 발령이 나더라고. 한국통신. 그랬더니 이제 부평으로 온 거야. 부평으로 와가지고 부평서 다니고 그랬대요. 개인 사업한다고 나오고.

면담자: 이제 마무리 할 단계인데요. 그 시절에 동양화학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한 거가 선생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동양화학에서 일했던 시절이 지금 생각하시면?

구술자: 어떻게 말해야 하나. 내가 동양화학 다닌 김에 골병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해 봐. 나 동양화학 댕기면서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걸 몰랐는데, 지금은 내가 동양 댕기는 바람에 큰 병 들었어. 친구들한테 그 얘기해요.

면담자: 그래도 큰 병명을 얻거나 이런 거는 없으신 거죠? 질병이.
구술자: 나이가 먹었으니 아플 때가 됐는데, 사방 팔다리 안 아픈 데가 없어. 거 댕길 때 하도 무거운 것만 다뤄 가지고. 내 동양화학 댕길 때 골병이 들었다. 일이 너무 힘들어. 일도 힘들고 약도 독하고.

12. 퇴직 후 생활(1:02:30~)

면담자: 그렇죠. 그래도 크게 질병이 없으시니까 다행이세요. 동양화학에서 일하셨던 동료분들하고 지금 혹시 만나는 분 있으세요?
구술자: 만나지 못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얼굴은 못 만나.
면담자: 멀리 살아요?
구술자: 충남 당진에. 그래 없어요. 죽은 사람도 있고 몇 명 안 됐어.
면담자: 그 시절,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오로지 일에 올인을 했던 시절이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즐기는 걸 중요시하고 그러는 편인데,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구술자: 나는 저런 사람도 현실적으로 산다그래. 사는 거 똑같은 거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한 사람이나 뭐 그냥 이렇게 놀아가며 한 사람이나 같아. 그러니까 그래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이 좋지.
면담자: 그 시대에 맞게. 지금은 또 그런 생활을 하는.
구술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면담자: 죽도록 일만 하는 거는 반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구술자: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얼마 살지도 못하고 가는데.
면담자: 저 질문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여쭌 질문 외에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뭐가 있으실까요?
구술자: 하고 싶은 말이야 뭐.
면담자: 없어요? 박인옥 선생님 혹시 뭐 더 질문할 거 뭐 있으시면은.
박인옥: 지난번 이야기하신 것 중에 사고, 그 포대 담는 라인에 한 여성 노동자분이 끼어서 사망할 뻔한 사건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오늘 안 하셔가지고. 빠졌죠.
면담자: 그때 다 들어서. 추가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박인옥: 근데 그 이야기하고 이거하고 같이 합칠 거예요. 그건 사전 인터뷰고 이거는 본 인터뷰고.
면담자: 우리 기록 아카이브에 녹취문 풀고, 이거는 이거대로 또 양식에 맞게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책 출간할 예정이면 다 합해서 하죠. 그때 다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로서 화학공장에서 일하신 경험이 그 시절에는 이제 흔치 않았었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사회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 시절에 여성 노동자로서의 일하던 모습.

구술자: 여자들이 저렇게 힘든 일을 하나 보는 사람.

면담자: 후손들이 알아줬으면은.

구술자: 어쩌다 가끔 와서 보는 사람들 그래. 아줌마들 대단하다. 어떻게 아줌마들이 저런 걸 하나. 그런 소리 들을 때는 어깨가 좀 우쭉해.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저런 사람이 보기에도 저렇게 칭찬해 주는구나.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다 입 다물어. 파레트 그것도 우리가 다 끌고 다녀.

면담자: 지난번하고 이번에 걸쳐서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머니로서 여성 노동자로서 사회에 큰 몫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구술자: 그래도 그렇게 후회되는 거는 없어.

면담자: 네. 네.

구술자: 맨날 기분 좋게 다녔어.

면담자: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술자: 말주변도 없고, 이런 거 처음 해 보니 뭐 알아. 그래도 영광이네요. 지나간 추억을 다시 읊어봐서

면담자: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녹취문 내용을 세부 주제로 나눠 시간 기입

글씨체 : 함초롬바탕

글씨크기 : 세부주제-12pt(볼드체 적용) / 내용-10pt

줄간격 : 200%